불안한 국제정세 속 물가 상승세 잡는다

한은, 금리 1.50%로 올려…연말까지 두 차례 더 올릴 듯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다시 올린 건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00%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이날 당분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봤으며, 올해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농산물이나 석유류와 같은 외부 충격에 변동이 심한 품목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상당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치(3.0%)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는 4.0% 오르고, 전남은 4.6% 상승했다. 광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4.0%)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랐다. 전남 상승률은 4.6%로, 이는 지난 2011년 8월(5.2%)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과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려면 기준금리가 연내 최소 2.00% 정도까지는 높아져야 한다는 게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시중은행 포함 17개 은행의 지난달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29%로, 지난해 같은 달(4.0%)보다 1.28%포인트 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550~5.236% 수준으로, 지난해 말(3.710~5.070%)과 비교해 올해 들어 3개월 사이 상단이 0.166%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4.010~6.070%로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최저 금리가 0.410%포인트, 최고 금리는 무려 1.092%포인트나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181%로 0.922%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이어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금리는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 하반기에는 7%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구 한은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지난 2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중심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이번 금리 인상의 물가 상승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 완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광주·전남 경기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석유제조 산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며 "올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서 대면 서비스업은 다소 부진했지만 2분기 소비는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전남신보-여수시 업무 협약

전남신용보증재단은 14일 여수시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지원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신보는 여수시가 출연한 1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2022 여수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여수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연계하면 대출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연 0.8%이다.

한편 전남신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가운데 중신용자를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1000만원)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장사 잘했다'

지난해 33곳 중 한전 제외 순이익 4.4% 늘어

지난해 한국전력을 제외한 광주·전남의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법인들은 전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021 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지역 33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9조49억원으로, 전년보다 4.4%(2조8891억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36개사 가운데 코스피시장 14개사와 코스닥시장 19개사 등 33개사의 지난해 실적을 비교했다.

코스피에서는 금융업종인 우리종금과 분할·합병한 금호에이치티가 제외됐으며,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이웨이 실적이 빠졌다.

먼저 한전을 포함한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7조731억원 적자가 났고, 순이익 또한 5조29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들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14.9%포인트, 10.3%포인트 줄었다.

다만 지역 전체 매출액의 86.5%를 차지하는 한전을 뺀 나머지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증가했다.

나머지 상장법인들의 매출은 전년보다 15.0%(1조2179억원) 증가한 9조344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3525억원으로, 전년보다 16.2%(491억원) 증가했다. 순이익은 3099억원으로, 전년보다 5421억원 늘며 흑자 전환했다.

지역 상장법인 33개사 중 총 19개사가 흑자를 시현했으며, 이 가운데 서산·우리로·정다운 등 코스닥 상장사 3개사가 흑자전환했다.

코스피시장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적자 전환한 기업은 한전과 대유플러스, 보해양조 3개사였다.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0%, 92.7%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적자로 돌아섰다.

지역 상장법인들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39.2%로, 전년보다 29.4%포인트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2일(현지시간) 열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올해의 선지자' 상을 수여했다. 사진은 수상 소감 밝히는 정의선 회장. /연합뉴스

전기차 선도하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퍼스트무버' 통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와 'EV6'가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는 등 전기차 시장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는 후발주자였지만, 전기차에서 선두주자를 꿰차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정의선 회장의 '퍼스트무버' 전략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오토쇼와 함께 열린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아이오닉5는 이 밖에도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까지 거머쥐며 월드카 어워즈 6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휩쓸었다.

앞서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도 올해 2월 '2022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특히 아이오닉5는 '독일 올해의 차',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2021 IDEA 디자인상 금상', '2021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디자인 부문'까지 수상하며 현재까지 출시된 전 세계 전기차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V6도 ECOTY에 더해 '아일랜드 올해의 차',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 1위', 영국 매체 탑기어 선정 '올해의 크로스 오버', '2022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 최우수상 및 본상' 등을 거머쥐며 선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은 정의선 회장의 강한 의지와 전략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정 회장은 전기차 대중화에 대비해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우리가 후발주자였으나 전기차 시대에는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같은 출발선상에 서있다"며 "경쟁사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치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자"고 임직원을 독려한 바 있다.

정 회장의 이런 의지는 현대차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성공적 개발로 이어졌다. 전용 플랫폼 개발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당시 정 회장이 결단했고, 주요 단계 때마다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디자인도 전기차의 핵심 요소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EV6는 개발 당시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너무 앞서간다는 일부 고객의 반응이 있었지만 정 회장은 이러한 디자인에 힘을 실어줬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5·18 주먹밥' 해외 간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주관 사단법인 참 스낵제품 美 수출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자 광주시의 대표음식인 광주주먹밥이 해외시장에 진출, K-푸드 대열에 합류한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14일 광주시가 육성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주먹밥 브랜딩 사업'을 통해 '광주주먹밥 제조원 사단법인 참(대표 권영신)'과 공동 개발한 광주주먹밥 상품이 미국 수출에 성공, 지난 13일 첫 적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출제품은 광주주먹밥 스낵 제품으로 주먹밥을 얇고 납작하게 눌러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단법인 참은 농식품 수출 전문기업 ㈜골든힐과 계약을 맺고, 미국의 유통기업 키트레이드사(khee trading.inc)를 통해 제품 출시 1년여 만에 LA지역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키트레이드사에서는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국 내 전 매장에 확대 판매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힐 관계자는 "현재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시장까지 광주주먹밥과 광주주먹밥 스낵 샘플을 보내고 바이어와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생활용품 최대 반값 14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열리는 '메종 드 신세계' 기획전에서 유명 생활브랜드의 실내 장식품, 침구, 주방 잡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 상품을 1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캐스퍼, 2030 여성에 인기

30대 16.35%·20대 1256대…7개월만에 2만대 등록 '경차 1위'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의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린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캐스퍼'가 30대 여성에게 가장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캐스퍼의 신차등록 월별 대수를 파악해본 결과 캐스퍼는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국내 경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지금까지 1위 왕좌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 당시 162대가 신규 등록된 이후 10월 1733대가 등록됐다. 이후 11월 4008대가 등록되면서 경쟁 차종인 기아의 레이를 따돌리고 경차 판매 1위에 올랐다.

이후 지금까지 매달 3000~4000대가 신규 등록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2만922대를 기록했다.

특히 캐스퍼 출시 7개월 개인구매 고객들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캐스퍼는 여성 구매 대수가 8138대(50.6%)로 남성(7944대·49.4%)보다 많았다.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 구매 대수는 2632대(16.36%)로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다. 이어 40대 남성(2613대·16.24%), 40대 여성(2057대·12.79%), 50대 남성(1928대·11.98%) 등 순이었다.

20대 사이에서는 총 1748대가 팔렸는데, 여성이 71.58%인 1256대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의 경형 SUV로, 사전예약 1만8000대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16.71 (+0.22)
↑	코스닥	928.01 (+0.70)
↓	금리 (국고채 3년)	2.888 (-0.113)
↓	환율 (USD)	1224.70 (-3.30)